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8월 25일(금)
(음력 7월 4일)

Пятница

25 августа 2017 г.
№ 33(11675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남부 사할린 및 쿠릴열도가 해방된 지 72주년, 광복 72주년 기념행사 <우정>이 전례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2면) (본사기자)

주지사, 사할린한인들과 대화를 하여

지난 21일(월) 오후 6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한인동포들은 사할린주 올레그 니콜라예비치 코제마코 주지사와 만남



을 가졌다. 사할린한인들과 코제마코 주지사와는 2015년 2년 전에 처음 만남 기회가 있었다. 만남은 전통적으로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인들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한 주지사는 사할린한인들은 친절하며 단결력이 강하고 근면하다며 한인들이 섬지역 경제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한인들을 통해 사할린주는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지사는 언급했다.

그는 사할린주에서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견 노무자 2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다. 주지사는 남북통일하는데 사할린동포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인사말 후 주지사는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한민족 문화유지 발전에 역할을 하는 5명의 한인여성들에게 주정부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자는 마카로브한인회 회장이며 마카로브박물관 관장대행인 고영순 마카로브한인회 회장, 주한인인산가족협회 박경춘 부회장,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이진선 문화담당자,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 <우리말> 방송프로 김춘자 국장이다.

수여식이 끝난 후 바로 주지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날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들과 심각한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8면에 계속)

8월 25일, 제7회 사할린국제영화제 개막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8월 25일 19:00 체호브센터에서 제7회 <세계의 끝(크라이스웨타)> 사할린국제영화제가 개막된다. 이에 앞서 18시 30분에는 레드카펫을 펼칠 예정이다.

영화제 경쟁프로그램은 주로 러시아와 아시아지역 영화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영화를 비롯한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16개 개국이 제작한 영화 10작품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화제에서 영화 2편은 데뷔작이다. 하나는 러시아 작품이고 또 하나는 일본작이다. 전통적으로 경쟁 프로그램에 한국영화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유명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그들>(2016년)이 소개된다. (첫 상영은 8월 27일 오후 6시 체호브센터에서, 상영 후 <문답>장에서 김순모 영화프로듀서와 만남).

이번 영화제에서는 <사할린의 영화>프로그램 상영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27일 오후 4시 30분 <콤포몰레츠>영화관에서 시작할 예정으로 상영 후 사할린 영화제작진들과의 작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마스터클래스와 워크숍이 펼쳐진다. 여러 프로그램들(아동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다큐프로그램, 환경보호에 대한 영화 등) 상영은 체호브센터, <옥차브리>영화관, <콤포몰레츠>영화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주정부 앞 야외 영화관에서는 저녁마다 러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영화들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순신기자)

단신

러시아 총리, 사할린 방문

러시아연방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총리가 22일(화) 사할린을 방문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그는 코르사코브구역과 네웰스크구역을 방문하고 여러 회의를 가졌다.

코르사코브구역 솔로비요브카에 있는 수산물가공공장 시찰 후 수산업 개발, 특히 극동지역에서의 수산업단지 활동에 대한 확대회의를 가졌다. 또한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와 면담 시 메드베제브 총리는 사할린주정부의 노후 주택 철거작업과 노후주택으로부터 주민들의 주택 이전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드베제브 총리는 9월 10일 사할린주 두마의원 선거를 위한 회의도 가졌다고 전해졌다.

메드베제브, <쿠릴>선도개발지역 설립 명령에 서명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정부 총리는 <쿠릴>선도개발지역 조성에 대한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쿠릴섬에 수산물가공센터가 건설될 전망이다.

<쿠릴> 선도개발지역은 쉬코탄섬 말로쿠릴스크에 마을에 조성되어 <오스트로브노이>수산물가공공장이 주관하여 품질 높은 냉동, 냉장, 그리고 통조림 수산물을 가공하는 종합단지를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계획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전개하여 투자자들은 74억 루블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로 근로자 700여 명을 위한 보급차리도 건설할 전망이다.

<에트노스>학교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회와 교류협약 체결

지난 21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교장 엔.에이지노와)에서 본교는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회(이사장 김덕수)와 한국전통연희 발전과 계승을 위한 교육적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에는 연합기획을 추진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미래의 잠재적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학생들 간 교류 · 한국전통연희 연구 · 강의 및 학술세미나 · 학술회 등, 교류협력, 공동교육 및 창조적 행사(마스터클래스, 공연, 축제, 대회, 등) 등이 반영되었다.

주여성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추천으로 표창장 수여

지난 19일 저녁 광복 72주년을 기념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랑데뷰>카페에서 주한인여성회(회장 김웨철)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운영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나탈리아 즈다카예와 두마의원은 적극적 사회활동, 문화교류발전에 대한 업적으로 시의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여자는 주한인여성회 추천으로 최정순 여성회 명예회장과 권행자 전 여성회 회장이며 현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추천으로는 김충경 <소망>아동창작협력회 회장이며 시한인회 운영위원과 배 워토리아 새고려신문사 사장이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난 1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한인회 주최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남부 사할린 및 쿠릴열도가 해방된 지 72주년, 광복 72주년 기념행사 <우정>이 전통적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오전 10시 영예(슬라와)광장에서 성화와 남부 사할린·쿠릴열도 해방자 기념비에 헌화식으로 시작되었다.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 황명희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소장,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김홍지 주한인노인회 회장, 리리 한국 팝아티스트를 비롯해 한인 단체 활동가, 한국에서 온 방문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등이 헌화하며 묵념을 올렸다.

행사의 공식 개막식은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북소리에 맞추어 다채로운 한복을 입은 학생, 젊은이, 그리고 단체 지도자들과 공식 인사들의 행진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따라 날씨도 명절 기분만큼이나 청명했다. 광복절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친척, 친구, 지인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할린동포들에 한해서 가장 큰 행사인 이날 다른 지역(마카로브,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체호브, 포로나이스크 등지)의 많은 한인들도 행사장을 찾았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 사할린을 역방문한 1세대 영주귀국자들도 꽤 많았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행사를 지켜봤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 황명희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소장,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사르키스 아코판 주민족아삼블레야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두마 최 유리 의원 등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우정, 평화와 번영의 행사를 찾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명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복과,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할린주의 번영을 빕니다."라며 축사를 했다.

주지사는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비즈니스 활동 덕분에 지역에서는 대한민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주요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투자는 사할린주 여러 경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주지사는 덧붙였다.

이날 주지사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여, 한민족 문화 유지발전에 대한 공로로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 코르사코브한인회 이태출 회장, 주한인회 회원인 오기철 씨와 <오스트로브> 동양무술센터 안수학 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황명희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소장은 이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축사를 요약해 대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광복 72주년 기념행사에서

날씨 좋은 날 함께 모여 명절을 보내며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참전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과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드사진 시장과 아코판 민족 아삼블레야 협회장, 최 유리 시의원 역시 따뜻한 축사를 전했다.

개막식 후 명절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은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팀이 연주하는 풍물놀이로 시작되고 사할린에서 잘 알려진 김경호, 윤민자, 리 올가, 강팔용 등 동포가수들이 한국노래를 불러 명절 기분을 상승시켰다. 항상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래를 즐기는 어린 가수 랍츠크 폴리나(2016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전국 노래자랑 세계대회 인기상 수상)는 이번에도 역시 맑은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에트노스>학생들도 멋진 무용으로 무대를 수놓았다. 고영일 씨의 색소폰 연주는 관객들의 마음에 가 닿는 감동을 주었다. 무술 선수 (태권도, 킥복싱 등)들의 무대, 특히 세계태권도 챔피언인 안수학 <오스트로브>동양무술센터 관장의 시범은 관객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다.

공연의 마지막 출연자는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리리 (LeeLee)가수였다. 그는 빠른 템

포의 노래 몇 곡을 부르고 마지막 축하곡으로 'I Love 평창'을 열창했다.

다음 행사 프로그램은 스포츠 경기와 노래자랑으로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달리기 경주, 씨름이 펼쳐졌고 처음으로 복싱경기도 있었다.

노래자랑 콩쿠르에는 14명이 참가했는데 1등은 박경식 씨, 2등은 안산 영주귀국자 중 듀엣, 3등은 최동만 씨가 했다고 전해졌다. 노래자랑 진행은 유동식 씨가 맡았다.

노래자랑을 재미있게 지켜본 관객들은 심사를 하는 동안 팝송을 즐기며 춤판을 벌였다. 1세대, 2세대, 젊은이와 꼬마들이 무대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어 보기가 참 좋았다.

스포츠경기의 마지막 순서는 한민족 씨름이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씨름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어린이들 중에서 인기가 많았다. 더군다나 상품을 놓고 벌이는 경쟁에 동포아이들은 무척 좋아했다. "그런데 성인 경기 분위기가 달랐다. 작년 같은 경우 참가자가 많지는 않았어도 거의 동포들이

씨름에 참가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성인 선수 중에 한인동포가 없었다. 광복절 행사 역사에서 이런 경우 처음이었다.

행사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조직위원들이 몇 가지 고민해 볼 점도 있다. 초기 광복절 행사에는 명절을 가족끼리 많이 즐겼었다. 가족 1,2,3세대가 함께 행사장에 나와 많은 경기에 참가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동포들 중에는 10대부터 50대까지 몇 십 명도 되지 않는다.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전통과 풍습을 유지·계승하려면 후세대들과 함께 하기 위한 정책과 이들을 참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과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비슷한 내용의 글을 최근년들의 광복절 기사를 쓸 때마다 쓰게 된다. 그리고 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 행사 조직 진행에 있어서도 전처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 자리에 함께 서있지 않을지라도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한인동포사회의 목적이 아닌가?

(취재: 글 / 배순신)
사진 / 이예식, 배순신)

한·러 수교 27주년을 기념하는 제4회 사할린 한·러 우호 축제가 8월 20일(일) <스틀리차>내 콩그레스홀에서 펼쳐졌다.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와 부산광역시, 사할린주한인회, 아시아나 항공 유즈노사할린스크지점의 후원으로 사할린주 문화부(사할린 디베르티스망 앙상블, 에트노스 예술학교)와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국립전통예술학교, (사)한울림(김덕수패 사물놀이)이 주관한 가운데 축제가 열렸다.

축제를 열면서 황명희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소장은 프로

제4회 사할린 한·러 우호 축제

'아픈 청춘도 고우니 맘 즐겁지 않은가'



그램 지면으로 환영사를 전했다.

'사할린 한·러 우호 축제가 벌써 4화째를 맞이하여 뜻깊은 축제에 예술을 사랑하시는 동포들과 사할린 주민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대한민국과 러시아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7월 G20정상회의와 오는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러시아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교류협력관계가 한층 증진되는 가운데 연례행사 자리잡은 한·러우호 축제가 올해는 양국의 전통 음악과 클래식 음악, 그리고 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보다 활발한 소통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와 함께 축제에 협조한 사할린 정부와 기타 후원 기관들과 주관하는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작년까지도 10월에 개최되었던 한·러우호 축제가 올해는 8월 중순 이후에 개최하게 되면서 공연장에는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했다가 잠시 자녀를 찾아 돌아온 1세 어르신들과 2세, 3세들이 자녀들과 함께 또는 가족들로 붐볐다. 그중에는 아직 방학 중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관객들은 하나의 큰 가족처럼 보이기도 했다.

자세한 설명이 삽입된 프로그램지에는 한국전통예술학교와 사할린 에트노스예술학교의 공연, 부산 힙합댄스가 1부에서 펼쳐지고 2부에서는 서양음악으로 한국 성악가들과 사할린 실내악단의 연주가 교대로 이어진 후 마지막 특별공연으로 김덕수 놀이패 '한울림'의 연주가 있었다.

무대의 막이 오르면서 한국 전통예술학교 학생들의 태평무가 펼쳐졌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춤으로 왕과 왕

비복장을 하고 웅장하고 화려하며, 절도미가 있는 춤사위로 무대를 수놓았다. 이어 사물놀이 '태동'의 신명나고 힘찬 울림으로 청소년들의 신명이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해졌다. 세세 판소리 '춘향가'가 무대에 오르면서 무대 뒤에는 판소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크린에 러시아어 번역 자막이 올랐다.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배려한 작은 수단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로소 '춘향가'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관객들 사이엔 웃음소리로 들려왔다. 네째 풍물놀이 '울림(風&無)'이 연주되었다. 풍물(風物)은 말대로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이란 의미로 바람은 신선한 바람을 말한다. 이 바람을 일으킬 물건들로는 나발, 태평소, 소고, 북, 징 - 악기를 기본으로 구성해 악기연주와 행렬을 지어 무리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놀이다. 신명나는 풍물 울림은 신바람을 만들고 생기있게 삶을 살아가길 기원과 용기를 북돋아준다고 하여 신명나 놀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번에도 상모돌리기는 관객들과 소통하며 흥겨움 속에 공연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현재 이 풍물 놀이는 '농악(農樂)'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어 사할린 에트노스 예술학교 학생들의 순서로 개나리 무용단의 '바라춤'이 시작되었다. 바라춤은 불교의식에서 승려들이 추는 승무로 바라는 뜻과 손을 움직여가며 질서정연한 빠른 동작과 활발한 움직임이 돋보였다. 여섯째 러시아 전통민요 '가치마 내 사랑'이 목소리로 무대

에 울림을 전했다. 악기의 진동이 없이 아코디언과 탬버린, 발로 차는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는 꾸밈없는 자연 그대로의 소리임을 들려 주었다.

<에트노스> 학생들의 마지막 무대는 <별거리>연희단의 '판굿'으로 풍물놀이와 비슷해 보였다. 판굿은 놀이성이 짙은 연주로 목적은 연주자들이 운모에 기를 모아 관객들에게 신명을 불어넣으려는데 있다고 한다. 여기서도 여학생이 돌리는 상모는 귀여움과 상큼함마저 느끼게 했다.

많은 갈채를 받으며 양국 예술학교 학생들의 무대가 지나고 부산 힙합댄스 팀이 전통과 현대 힙합이 융합된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였다. 이어 2부 서양음악 부분에서 사할린 실내악단의 바이올린연주자 로 엘가의 '안녕 내 사랑'과 카르텔의 행고가 연주되었고, 한국의 소프라노 박성희 성악가는 풍부한 성량으로 '밤의 여왕 아리아'와 '아르디티의 입맞춤'을 불러 관객에게 큰 갈채를 받았다. 베이스의 이연성 성악가는 한국의 가곡 조두남의 '벚꽃'과 러시아의 가곡 보리스 포민의 '머나먼 길'을 부르자 관객들은 반가운 듯 익숙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오래전 옛이야기를 더듬듯.

2부 마지막 곡으로 '...강 물빛 소리 산 낙엽 소리 천지 사방이 고우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들끓는 소리 아픈 청



춘도 고우니 맘 즐겁지 않은가... 푸르게 더 푸르게 수만 잎을 피워낸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라는 가사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연성, 박성희 성악가가 듀엣으로 불렀다. 이후 특별공연으로 김덕수 사물놀이패 '한울림'이 관객석 뒤에서부터 태평소를 불며 무대로 올랐다. 한국에서는 김덕수 하면 사물놀이, 사물놀이 하면 김덕수라고 할 만큼 그의 명성은 크다. 1978년2월 서울 '공간사랑'에서 김덕수 선생을 중심으로 창단된 <사물놀이>패가 연주한 것이 사물놀이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이후 1993년에는 김덕수의 사물놀이패 한울림 예술단이 창단되어 국내외에서 다수 상을 받기도 했다. 무대에 오른 사물놀이는 북과 팽과리와 징과 장구 두 대로 구성되었다. 북 소리는 구름을, 팽과리 소리는 천둥을, 징 소리는 바람을, 장구 소리는 비를 의

미하는 사물은 '길놀이'와 '삼도 농악가락'을 신명나면서도 끊어질 듯 이어가는 연주로 관객석까지 큰 울림이 되어 어딘가 막힌 속을 털어내는 듯했다. 연주 후 김덕수 선생은 러시아어로 짧게 한·러우호 축제를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사할린한인들과 음악회를 열게 된 기쁨을 전하고 후원기관과 주최 측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여 기원했다.

이번 축제에서 장원창 교감이 이끄는 한국전통예술학교와 사할린전통예술학교 학생들의 교차되는 연주는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을 주지만 전통음악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열정은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다.

제4회 한·러우호 축제 공연은 모든 연주자들과 관객들이 함께 아리랑을 연거푸 부르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취재: 글/ 박혜신, 사진/ 이에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В 1674 г. на престол вступил ван Сукчон. Он правил очень долго – 46 лет – и это время стало периодом максимального обострения конфликтов между «партиями». В немалой степени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и личные качества короля – он был человеком вспыльчивым, не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м и властным. В первые месяцы правления Сукчона партия Запада была отстранена от власти партией Юга, которые очист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ппарат от противников и назначили на посты своих людей.

В 1680 г. произошел еще один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й переворот –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Запада удалось очернить своих противников и вернуться к власти. В 1689 г. Южане суме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тем, что ван чрезмерно увлекся одной из своих наложниц из семьи их сторонников и добились реванша. Партия Запада вновь была отстранена от власти, а связанная с ними королева Мин (более известна в истории по своему тронному имени Инхён) низложена и выслана. Были убиты и казнены мно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падной партии, включая Сон Сирёля.

Сукчон назначил наложницу Чан Хибин королевой-консортом, а ее сына наследным принцем. Однако королевская любовь переменчива – через 5 лет Сукчон стал сожалеть об изгнании жены (которая вела добропорядочную и скромную жизнь в изгнании), к тому же он увлекся новой наложницей дамой Чхве Сукбин из клана Чхве (который был союзником Западной партии). Южная партия между тем решила навсегда избавиться от Западной, обвинив ее в заговоре с целью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королевы Инхён. Однако король разозлился на Южную партию, вернул Западную и восстановил королеву Инхён в правах – она вернулась во дворец в покои королевы, а Чан Хибин была понижена опять до уровня наложницы.

Королева Инхён умерла в 1701 г. в возрасте 34 лет от неизвестной болезни, а многие хроники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ее отравили. В хрониках также были описаны следующие события: Сукчону приснился сон о жене, которая стояла перед ним в окровавленном платье и он спросил ее, кто виновен в ее смерти. Инхён, якобы, ничего ему не сказала, но указала в сторону покоев Чан Хибин. Проснувшись, Сукчон направился к наложнице и услышал музыку и смех (во время траура). Зайдя в покои Чан, Сукчон увидел ее с шаманками, молившимися за смерть королевы и проводящими непонятные обряды. Король велел казнить Чан Хибин за колдовство и смерть Инхён.

Западная партия не оставалась единой. Она разделилась на Норон (старое учение) и Сорон (новое учение). Сорон поддерживала наследного принца Хви Со (позднее король Кёнджон), сына Чан Хибин, а Норон выступала за принца Ён Ина (позднее король Ёнджо), сына Чхве Сукбин. В 1718 г. Сукчон назначил Хви Со своим регентом, а через два года умер (в 1720 г.) в возрасте 58 лет. Было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он назначил наследником Ён Ина, однако записей об этом не было, но слухи привели к еще одной чистке при дворе.

На протяжении своего 46-летнего правления Сукчон провел три реформы. Он провел реформу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вел 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онеты, а также позволил среднему классу и детям наложниц занимать более высок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должности в провинциях. В 1712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укчона работало с династией Цин в Китае,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границы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на реках Ялу и Туманган.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нало остров Уллындю территорией Кореи в 1696 г. (Современное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стаивает, что острова Лианкур (Токто) были также признаны по этому договору,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стаивает на обратном). Сукчон заложил основы эпохи возрождения Чосона, которая наступила при последующем правлении королей Ёнджо и Чонджо.

Несмотря на постоянные заговоры и перетряску партий (что объективно вело лишь к увеличению власти вана), политическая жизнь мало влияла на жизнь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а правление Сукчона осталось в памяти людей как очень благополучное время.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Ван Сукчон (1661–1720)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метили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72-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состоялось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Мун пришел сюда сегодня с женой и маленьким сыном. Говорит, его семья отмечает этот день ежегодно.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еще сохраняет основные традиции своих предков, а вот наши потомки, к сожалению, их уже не знают. В своей семье мы стараемся отмечать все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и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них детям,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Мун.

К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поздравлениям, звучащим в этот день со сцены, присоедин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Олег Кожемяко.

Искренне рад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 Празднике дружбы,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желаю счастья,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и благополучия! А наш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роцветания на многие годы!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н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дел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егионе налажены тесные связ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за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ручены президенту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ю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а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Те Чуль, а также ее членам О Ги Чел и Ан Су Хаги. Омечен был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рейши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им Хон Ди.

По окончании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перед зрителями выступи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А после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песенном конкурсе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Пресс-цент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й лидер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Почет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Василий Цо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Поч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градой отмечены его обществ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многолетняя добросовестная работа.

Цо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родился 22.11.1950 г.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1974 г. окончил Джамбул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ле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1974-1975 гг. работал мастером на Кокандской обувной фабрике, в 1975-1977 гг. – инженером-технологом на Джамбулском авторемонтном заводе. В 1978-1981 гг. –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директор Суфийшлякской ватной фабрики. В 1987 г. назначен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Ахунбабаевского ват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В 1989 г. избран депутато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од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ле. С 1992 г. занимается бизнесом, представляя интересы фирмы «Техноэкспорт лтд» (B.V.I.).



Председатель ООК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Цо

Москва, 19 августа. ИА РУСКОР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 계약직원 채용 공고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할 여성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2명 (계약직)
2. 계약기간(예정) : 2017.10월부터 1년 6개월간, 2017.12월부터 1년 6개월간
3. 계약 조건 : 급여(면접시 상세 안내), 본인 및 가족 항공권 지원(면접시 상세 안내)
4. 기타 안내 :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 우선 채용
5. 채용 절차 : 이력서, 학력증명서 제출 및 면접 (면접자중 우수자 채용)
6. 업무 내용 : 예약 및 발권, 공항업무, 기타 지점 전반의 업무
7. 근무 장소 :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 (라다호텔 1층) 및 공항(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8. 연락처 : 전화 722-001 e-mail alexei@flyasiana.com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ША вве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Китая и России из-за связей с Пхеньяном

22 авгус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США внесло в санкционный список, связанный с СК, десять компа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Китая, России, Сингапура и Намибии, а также шесть граждан Китая, России и КНДР. По мнению Вашингтона, они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 экспорту рабочей силы из СК, операциям по купле-продаже угля и нефти, разработ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а также замешаны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содействию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еве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В списке базирующаяся в Москве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Гефест», пять китайских компаний, две сингапурские и две базирующиеся в Намибии. Причиной санкций послужил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этих структур с ряд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частности, как указывается в списках минфина США, группа «Гефест» работала с торговой корпорацией «Тангун». В этом году США объявляют санкции четвёртый раз. Сначала они затрагивали в основном СК, 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пакета санкций направлены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стран. Фактически, речь идёт о мерах вторичного бойкота.

Ким Чон Ын дал указание увелич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боеголовок и твёрдотопливных двигателе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дал указание увеличить объё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боеголовок для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и ракетных двигателей на твёрдом топливе. Как сообщает в среду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указание дано в ходе посещения Ким Чон Ыном Института хим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при Академии военных наук СК. Ким Чон Ын ознакомился с работой института и дал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деятельности его сотрудников, сообщает ЦТАК, не указав, когда имен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бывал в институт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Россия заключили контракт на запус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утников

РК и Россия заключили контракт на запуск дву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утников с помощью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Союз-2». Как сообщало агентство ТАСС, контракт подписали компании «Главкосмос» и «Главкосмос пусковые услуги» с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KARI) и Корейской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KAI). 17 августа «Главкосмос» подписал контракт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на запуск спутника CAS500-1, а 18 августа с корпорацией на запуск CAS500-2. Спутник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зондирования Земли. Они должны проводить съёмку планеты в панхроматическом и многоспектральном режимах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олезной нагрузки AEISS-C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ная компактная систем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зондирования Земли высокого разрешени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стигнет пика в 2031 году

Националь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РК обнародовало прогноз изменений численности и структуры домохозяйств в период с 2015 по 2045 год.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 2031 году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достигнет своего численного максимума в 52 млн 960 тыс. человек, а затем пойдёт на спад. Между тем,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домохозяйств будет достигнуто в 2043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т 22 млн 341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связано с постоянным ростом количества домохозяйств состоящих из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На их долю к 2045 году будет приходиться 36,3%. В 2015 году средняя численность членов домохозяйства составляла 2,53 человека. В 2045 году отметка, по прогнозам, сократится до 2,1 человек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из мусульманских стран

Гости из мусульманских стран постепенно замещают в РК китайских туристов.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1 авгус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К посетили 985.858 туристов из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Это на 33%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Их доля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щающих РК,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Если в 2014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5,3%, то в 2016 году 5,7%. Между тем, отмечается нехватка удобств, учитывающих культуру мусульман, в том числе особенности кухни, религиозные правила и другие. В этой связи,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разрабатывает меры по исправлению этой ситуации с целью привлечения большего количества туристов из мусульман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Эта задача особо актуальна на фоне резкого спада потока китайских туристов.

(R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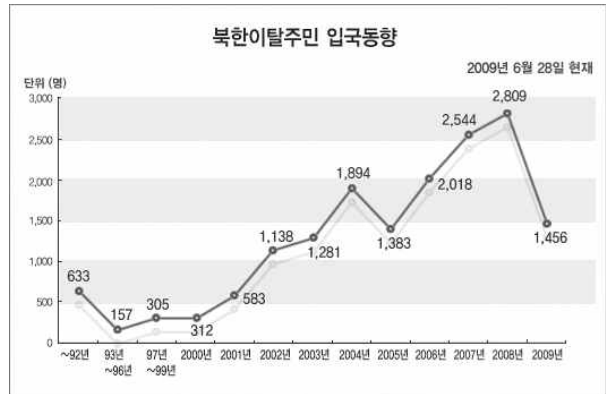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БУКХАНТХАЛЬЧЖУМИН» - ГРАЖДАНЕ, БЕЖАВШИЕ С СЕВЕРА

П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за период с 1953 г. по 2000 г. в Южную Корею сумели перебраться 1307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Около 190 из них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скончались, а 33 выехали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До конца 1980-х годов число перебежчиков с Севера достигало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большинство которых относились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номенклатуре: военные летчики-офицеры, унававшие самолеты, дипломаты и сотрудники внешнеторг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ходившиеся за границей 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частей,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доль ДМЗ, а также рыбаки.

К началу 1990 гг. жизн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ыла терпимой, силовые ведомства блюли строгий контроль, проводили тщательный отбор кадров, а граница плотно охранялась, что сводило до минимума возможность бегства. Начиная с середины 90-годов число перебежчиков стало расти, что было связано с резким ухудшением жизни в КНДР и политикой поощр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еребежчиков на Юг. С конца 90-х годов счет бежцам на Юг пошел уже не на десятки, а на сотни человек.

Политика поощрения перебежчиков Севера началась с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военной диктатуры во главе Пак Чжон Хи, и в 1962 г. был принят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выходцев с Севера». В 1978 г.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арламент принял нов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еребежчиков», который с небольшими изменениями действовал до 1993 г. Оба зак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затраты, и перебежчики пользовались большими льготами. Они получали пожизненное денежное пособие, государство обеспечивало их бесплатно квартирами, 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л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упить на учебу в любой университет.



Термин *мхальбукджа*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лся до 2004 года, но громче становились голоса, что его следует заменить из-за скрытого негативного смысла. В итоге в январе 2005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объявило, что отнын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беженцы будут называться термином *сэтхомин* - звфемизмом, означающем «люди новой зем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о понятие, но са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беженцы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НПО, отказались от него, говоря об его «надуманности и противоестественности». К тому же это понятие не включало в себя беженцев, не желавших оставаться в Южной Кореи, и отправившихся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А таких людей, как оказалось, немало. В ноябре 2008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объединения объявило, что оно не будет больше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своих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сэтхомин», но оно продолжало циркулировать в бытовом языке и газетной лексик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ым термином, используемом в документации и СМИ стало слово «*букхантхальчжумин*».

Ситуация с беженцам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езко изменилась в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после крах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и развала СССР. Первым признаком перемен стало прибытие в Южную Корею бывши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лесорубов, работавш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екоторые из лесорубов смогли бежать из своих лагерей и добраться до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ив в 1994-1995 гг. более трети всех перебежчиков. Имеющиеся данные позволяют судить об изменениях в качественном, возрастном и половом составе перебежчиков. Прежде всего отмечается возросшая доля женщин, состав-

ляющая примерно треть — 34,3 процента. По своему социальному происхождению 46,3 процентов перебежчиков последних лет — это рабочие и крестьяне, то есть люди, не имеющие высшего или средн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Еще 34,1 процента — это учащиеся и женщины-домохозяйки. Служащие всех видов, в том числе партийные работники и учителя, составляют лишь 9,1 процента перебежчиков. Еще 6,7 процентов перебежчиков 1996-2000 гг. — это дипломаты и работники заграничных учреждения КНДР, а 3,6 процента —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реди перебежчиков последних лет доля тех, кого можно счит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элиты или даже средних слое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едва достигает 15-20 процентов.

В 1995 г.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страдала от неурожая, страну охватил острый голод, вынудивший сотни тысяч людей искать спасения в соседнем Китае. Лишь немногие из беженцев сумели попасть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касалось лиц, обладавших ц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представлявшей интерес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спецслужб.

После проверок перебежчики направлялись в специаль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Ханавон» в 70 км. от Сеула. Программа центра рассчитана на три месяца, примерно половина учебных занятий отводится на изуч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Остальное время — обучение навыкам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 Южной Кореи. На начало марта 2001 г. курсы окончили 248 человек. В 2002 году вместимость Ханавона была удвоена, через два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второго корпуса. Однако, многие перебежчики считают, что трех месяцев недостаточно для осво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х навыков жизни в абсолютно новой для них реаль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открыло свыше 20 учебных центров для перебежчиков, а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в них продлило на три недели.

Однак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не так просто, трудиться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 чрезвычайно сложно. В 2000 г. из 924 обследованных перебежчиков 55,8 процентов были безработными, тогда как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составил лишь 4 процента. 16,5 процентов работали по найму в фирмах, 9,1 процента были независимы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 1,7 процентов работали 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центрах и университетах. Остальные были нетрудоспособны по возрасту или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оходы перебежчиков были намного ниж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В начале 2001 г. средн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среди них составлял 960 тысяч вон (770 долларов США) на семью, а средн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ородской семьи составил 2, 6 млн. (2000 долл.).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свыше трети «*букхантхальчжумин*» ощущают дискриминацию и хотят уехать жить в другую страну.

Дети и подростки с Севера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особ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огромной разницей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двух стран. С 2000 год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Юг прибыло 417 детей, 95% которых —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При этом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з тех, кому полагается учиться, не ходят в школу. Некоторые молодые северяне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учиться вынуждены заниматься подработкой и готовиться к сдаче экзаменов экстерном. Однако, их занятия обычно продолжаются недолго, потому что сдать экзаменов они не могут. Специалисты указывают на большую разницу в уровне подготовки северян, к тому же почти каждый четвертый из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перебежчиков вообще не учились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каждый пятый не получил даже полного нач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бросили учебу в школах в средних или старших классах.

На сегодня перебежч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малую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группу, однако опыт их ассимиляции на Юг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ен для будущего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примере «*букхантхальчжумин*» можно спрогнозировать проблемы и трудности на пути к объединению страны и единению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и принять меры к их смягчению или упреждению.

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д.и.н., профессор,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и его коллег, погибших в авиакатастрофе на Камчатке

Родственники, друзья и бывшие коллег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мемориалу, расположенном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Воскресенского кафедрального собора. В церемонии памят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Дерновой.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Тихон отслужил у мемориала заупокойную литию. Позже собравшиес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Вертолет МИ-8, летевший из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 потерпел крушение 20 августа 2003 года возле горы Опала. На его борту наход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и сопровождавшие его руководители и сотрудники различных структур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и направлялись в служебную командировку. В авиакатастрофе погибли 20 человек. Среди них 14 сахалинцев, трое жителей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три члена экипажа.

Сахалинские танкисты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с наградами

Островные экипаж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самому необычному биатлону на планете – танковому.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Арми-2017» проходили на подмосковном военном полигоне Алабино.

Сборные из 28 стран мира вышли на передовую. Среди них: Россия, Казахстан, Индия, Китай, Венесуэла, Беларусь, ЮАР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Вперв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манды Лаоса и Уганды. В финальной эстафете российской команду представляли 2 экипажа 39-й отдельной мото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Хомутovo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ервый танковый экипаж Юж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В боевых машин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ходились три человека - водитель, наводчик-оператор, командир. Танковым биатлонистам предстояло на скорость проехать по специально оборудованной трассе и поразить мишень с помощью трех раз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соревнований танкисты сдавали нормативы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По итогам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зачета сахалинцы заняли перв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о. Тем самым внесли решающий вклад в победу России.

Самолет с островными танкистами сегодня приземлился на военном аэродроме в селе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взлетной полосе «Маршем победителей» героев встречал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обеда сахалинцев стала возможна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ым действиям экипажа. Меткая стрельба зависела не только от наводчика, но и от механика-водителя.

- Морально было сложно, потому что там трибуны, много зрителей, но мы смогли собраться и показать все, на что способны, - вспоминает наводчик-оператор Илья Ишимов, который в фин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не допустил ни одного промаха.

- Неприятностей в пути танк не доставлял, рассказал механик-водитель «бронзового» экипажа Алексей Бакулев. Именно он выжимал все из танка, преодолевая препятствия на максимальной для 44-х тонной машины скорости в 65 километров в час. - Мы никого не боялись, это нас все боялись. Мы так натренировались, что понимали друг друга с полуслова, - добавил он.

Победа сахалинцев,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россиянами, принес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вание победител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Танковый биатлон»,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оказалась команда Казахстана, третьи - китайские военные. С биатлона островные танкисты привезли кубок. Сахалин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также пообещало поощрить победител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нира.

Областное августовское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совещание соберет более 500 участников

В области определена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августов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совещани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28 по 29 августа на площад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ема совещания –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амках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учительского роста».

Заседание пройдет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ластей, областных парламентариев,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ов,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управление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директоров и педагог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всего более 500 человек.

Центра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нет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подведет итог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и

обозначит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на ближайший период. Участники совещания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обуче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а также пут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учитель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традиционный августов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форум посвящен 7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запланирована работа фотовыставки – «Ровес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заслуженных работниках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Итоговым документо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ет резолюция, в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жены согласованные задачи и действия по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Областного августовского совещания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23 августа 2017 год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Е.Н.Касьянова провела очередной прием граждан

21 августа состоялся очередной прием граждан министром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Н.Касьяновой. Большинство обращений связано с вопросами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В ходе приема многодетные родители (четыре семьи) получили разъяснения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порядку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единовременных выпл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в том числе при заключении догов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ипотеч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областного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о выплате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для семей, имеющих 5 и более детей.

Также одной из заявительниц дана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экзопротезов и присвоении звания «Ветеран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тям из Японии организовали интересный и познавательный отдых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лагере «Чайка»

В августе Центр медико-социаль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Чайка» принимал детскую делегацию из г. Саппоро. Гости приехали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в рамках Меморандума о проведении молодежных обменов, заключенного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бществом «Япония – страны Евразии»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м комитетом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детей, пострадавших во время мартовского бедствия 2011 г. А чуть раньше в июле в Японии побывали дети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Неде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аникул для шестерых японских детей и двух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вместила целый каскад разнообразных интерес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ездки и экскурсии по городам Сахалина (Невель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Холмск), посещение музеев, квесты, мастер-классы, концерты и конкурсы и т.д.

Гости из Японии быстро подружились с сахалинскими школьниками, отдыхавшими в «Чайке». Общаясь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японцы охотно изучали русский язык, 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ассказывали нашим ребятам о нюансах японской речи. Еще больше сблизило детей совместное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оригами и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керамической Дымковской игрушки. А еще были экскурсии в музей медведя, в Саду бабочек, на игровую площадку Игромикс.

Гост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спортивных 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и подвижных играх, - играли в пионербол, теннис, шашки и шахматы, танцевали на дискотеках... Кстати, спортивная подготовка у ребят из соседней стран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они занял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в «Веселых стартах», в велостартах, а также в друг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Особен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гостей произвел туристическ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Аквамарин» на побережье Татарского пролива, где ребят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загорали, купались в бассейне, играли в пионербол на песке. Надолго запомнится и посещение яхт-

клуба г. Холмска, прогулка на катере по морской акватории.

Перед отъездом у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япо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было одно пожелание - еще хотя бы раз приехать на отдых в «Чайку».

Спартакиада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овь состоя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II Спартакиада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стоялась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На финальный этап из районов приехало 6 команд - это на три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портсмены выявляли призер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в состязаниях по армспорту, волейболу, гиревому спорту,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баскетболу, шахматам и перетягиванию каната.

- В этом году,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этапов команд прибыло меньше. И только две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ли требованиям, заявленным в положении - команда из Охи "РН-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 и команд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окомотив". Остальные прислали участников, работающих на раз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поэтому их результаты не вошли в официальный зачет, - отмет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 соревновании по армспорту победу праздновали охинцы, набрав 120 очков.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 трудовой коллектив из Анивы (108 очков). Призовую тройку замкнули невельчане (98 очков). В волейбольн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первое место разделили трудовые коллективы Холмска и Охи, набрав 900 очков. Второй стала трудовая дружина из Анивы (760 очков). В гиревом спорте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толчков" и "рывков" выполни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Невельска. Вторыми стали гиревики из Охи. В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победу праздновали охинцы (120 очков),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 трудовой коллектив из Невельска, третье - южносахалинцы. В состязаниях по пинг-понгу не было равных спортсменам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360 очков),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отстали от лидеров охинцы (340 очков), трети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и холмчане. Команда из Долинска участвовала только в одном испытании: в баскетболе она стала второй (340 очков), пропустив вперед трудовой коллектив из Невельска, и обыграв баскетболист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м виде спорта - шахматах первенствова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Холмска (360 очков), вторую строчку итогового протокола заняли охинцы (340 очков), замыкает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спортсмены из Невельска (305 очков). В перетягивании каната участвовало только 4 трудовые дружины. После ожесточенных схваток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обедителя определить не удалось. Спортсмены из Анивы и Охи были одинаково упорны и сильны, обе команды набрали 900 очков. Вторыми стали холмчане (760 очков).

По итогам всех испытаний победителем II Спартакиады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стала команда из Охи "РН-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 в их активе 3080 очков. Второй признана команда "Локомотив" ОАО РЖД, набравшая 1383 очка.

Остальные команды финишировали вне зачета -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брала 2700 очков, сборная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набрала 2543 очка, сборная Анивы 2053 очка, замкнула итоговый протокол команда из Долинска - 340 очков.

В Невельске состоя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20 августа в Невельске состоялся традиционный турнир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Игоря Павловича Фархутдинова и руководящих работ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гибших в авиационной катастрофе 20.08.2003 года.

- Сбор спортсменов состоялся у здания стар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сле этого участник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у мемориала, и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затем отправились в Невельск, - отмет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В турни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четыре команд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тера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етераны Холмска", "Ветераны Невельска".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участников старше 50 лет.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словами к участникам турнира обратились первый вице-мэр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ладимир Копылов 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а Радыгина.

Согласно положения турнира, каждая команда состояла из 10 человек. Игра велась в два тайма по 15 минут.

В ходе захватывающей и интересной игры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ветераны из Невельска,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и ветеран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футболисты из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пециальным призом за волю к победе отметили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Холмс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состоялось 21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шли пенсионеры, молодежь, бизнесм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Макарова.

Открывая встречу, которая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ходила в формате «вопрос – ответ»,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дружные, сплоченные и трудолюбивые люди -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ходе общения речь зашла, в частности, о газификации Владимирки – райо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частной застройкой. Многие из домовладений используют для отопления дрова или уголь, создавая сильное задымление, особенно в холодное время года. Решением проблемы мог бы стать переход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По имеющейся информации, компания «Газпром» намерена начать работ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подачи «голубого топлива» в западные жилые районы город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 Если у кого-то из вас есть в этом районе земля, и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вести дом, - стройтесь,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обращаясь к участникам встречи. – Областны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третился с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власти готовы вам помочь, предоставить кредиты под семь процентов годовых на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через региональн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ка закончите стройку, подведут и газ.

Пришедших на встречу студентов, изучающих медицинские и строительные профессии, более всего интересовали перспективы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рачам,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ют к нам работать, мы оказываем серьезную поддержку, - сказал глава области. – В частности, выплачиваем хорошие подъемные. По истечении установленных сроков специалист получает право приватизировать служебное жилье. При этом врачу не составит труда найти на островах работу. Потребность нашей медицины в специалистах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ставляет сегодня около 260 человек.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в регионе строительная отрасль.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масштабные за-



дачи.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нам предстоит разверну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ых зданий. Ввести более 4000 арендных квартир. Мы начина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Поэтому потребность в грамотных строителях будет очень большой.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ведут работу над тем, чтобы уравнивать стартовые 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трои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их конкурент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ри выборе подрядчиков для возведения объектов на островах. По его мнению, сегодня местные компании оказываются в про-

игрышном положении, потому что в отличие от организаций с материка выплачивают своим работникам район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А это приводит к тому, что их услуги оказываются дороже.

- Губернатор ответил на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амых разных вопросов, - сказал по итогам длившейся почти два часа встречи депутат городского собр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Юрий Цой. –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одить как можно чаще,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рассказать главе области о волнующих их проблемах, и получить ответы.

(Пресс-цент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ндидат Шик Анастасия Юрьевна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збирательный округ № 4.

Внимание!
Ивановых в списке двое.
Не ошибитесь!

Кандидат Иванова
Светлана Васильевна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Кандидат Бойченко Аркадий Витальевич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Кандидат Котляревская Анжела Васильевна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전 세계 한글학교 교장들, 역량 강화 위해 모였다! '2017 한글학교 교장 초청연수' 개막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장들이 학교 경영의 전문성 강화와 한글학교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국을 찾았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이 주최하는 '2017 한글학교 교장 초청연수'가 21일 오후 6



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전 세계 29개국 54명의 재외한글학교 교장·교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했다.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연수는 학교 경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족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올해는 학교 경영자로서의 교육철학을 세우기 위한 '교직소양',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체성 교육'과 함께 '한국사 강의'와 '한지 공예' 등 역사 강의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났다.

21일에는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 한글학교 운영 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뮤직콘서트에 이어 개회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최동준 기획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1,800여 곳의 한글학교에서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말과 글을 배우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키우는 것은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길게는 50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과 한글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글

학교 교사 및 교장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연수 이틀째인 22일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교육철학 세우기',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등 한글학교 관리자로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 기록 관리,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실제 현장 활용에 중점을 맞춘 직무 교육을 받았다.

또, 올해 대회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정체성 교육을 위해 '영화를 통해 보는 대한민국의 현대사' 수업에도 참여했다.

23일에는 한글학교 교사인증제와 정보공시시스템, 맞춤형사업 등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운영 및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4일에는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한글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자체회의를 통해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기관으로서의 한글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캠페인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토의 내용은 마지막 날인 25일 수료식에 앞서 발표되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Российская объедине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ЯБЛОКО» фактически единственн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в России.

Нам, как и вам надоел этот бардак, когда ответственные лица ни за что не отвечают и ничего не хотят делать.

Мы идем на выборы, чтобы победить. Победить, чтобы сделать жизнь простых людей лучше!

Что человеку нужно?

Чтобы его дети, друзья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были счастливы и здоровы. Чтобы в доме было тепло и уютно, а вокруг – на улице, городе или поселке было чисто и комфортно.

Сейчас пришло время молодых, которые в этих не 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готовы отстаивать права простых граждан на достойную жизнь. Поддержите нас!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Гуркин Антон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Пак Вениамин - депутат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Карабашлыков Кирилл
юрист



Карабашлыков Владислав
техник-механик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리리, 사할린과 인연 유지할 생각

사할린주한인회 초청으로 이번 광복절 72주년 기념행사 공연프로그램에 출연한 리리(Lee Lee) 세계적인 팝아티스트는 강원도 홍보대사로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다.



사할린 광복행사에 참가한 그는 사할린 1세들의 가혹한 운명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며 2, 3, 4세대들이 훌륭하게 사할린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뿌듯하다고 했다. 사할린 광복절 행사참가에 바로 응했던 것은 다른 행사보다 광복절 행사가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코르사코브 망향의 탑도 찾아 참배하고 주한인회 관계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이번에 그는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에게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와 뺏지를 선사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할린과 인연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리 예술가(본명: 이이)는 팝가수일 뿐만 아니라 작곡가로 활동, 예술·음악 감독, 영화음악 작곡가·감독, 연주자 등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해오고 있다.

강원도 출생인 그는 가수로서 데뷔는 한국에서 했지만 20여년간 영국 런던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그동안 세계적인 음악가, 작곡가들 중에서 인정을 받고 함께 활동도 하고, 작곡도 많이 해왔다. 사실 리리는 아시아인 최초로 2004, 2005년 세계적인 공연장인 런던 아스토리아홀과 일렉트릭 볼룸에서 데뷔 공연을 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세계적인 팝가수들 및 비운세, 레이디가가 프로듀서들과 함께 앨범작업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리리 아티스트는 22일 귀국하고 '세계팝음악시상식(The World Pop Music Awards)' 준비에 행사 위원장으로서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배순신기자)

인천 여행자 12명, 사할린 방문

발룬투어리즘(여행+자원봉사) 12명으로 구성된 한국팀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사할린을 방문했다. 사할린, 사할린동포한인들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이들은 토마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등 구역을 방문하고 김윤덕 옹을 찾아 강제동원 사실 얘기를 듣고, 사할린주한인회, 사할린한국교육원, 새고려신문사, <우리말>방송 관계자와도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여행팀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광복절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한러축제 공연을 잘 보았다고 했다.

여행자 중 사이판 여행 대신에 사할린여행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역사 탐방, 현지 동포생활 실태 파악 등이 훨씬 더 재미있고 더욱 더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이번 팀은 이미 사할린을 다녀간 적이 있는 인하대 박봉수 교수가 이끌었다.

여행기간 동안 돈을 아껴 쓴 봉사자들은 남은 여행비용을 모국어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고려신문사와 <우리말>방송 팀에 전달했다.

본사는 이에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본사기자)

제 8회 사할린에 남겨진 코리안을 찾아가는 여행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에서 사할린한인들에 관심을 가진 11명으로 구성된 팀이 사할린을 찾았다. 제8회 사할린에 남겨진 코리안을 찾아가는 여행을 주관한 단체는 전국재일외국인 교육연구소·전국재일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다. 장기간 사할린한인과 사할린한인사에 관심을 가진 이 단체들은 해마다 이와 같은 여행을 조직해오고 있다. 해마다 오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방문자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학업에 종사하거나 민간단체 활동가들이었다. 일본팀은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만난 후 새고려신문사도 찾았다. 여행자들은 사할린한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만화로 책자를 만들어 일본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사할린에 러시아관을 소개했다. 사할린한인역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일본인과 재일동포에게 존경을 표할 만하다.

(배순신기자)

주지사, 사할린한인들과 대화를 하여

(1면의 계속)

물론 주택, 주택단지 관리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특히 개인집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목길과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아직 단지 내 마당 상태가 많이 나쁘



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에 주지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단지 내 마당 관리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정부도 적극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만약 시민들이 1000루블리를 투자하면 정부에서는 99000루블리를 투자할 것이라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블라디미르보카 동네 가스화문제도 질의에 올랐다. 주지사에 따르면 이는 가스프롬이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서쪽 동네는 내년부터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코제마코 주지사는 개인주택을 공사하고자 할 때는 사할린주 주택담보대출기관을 통해 연 7%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졸업 후 향후 사할린에서 건설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의 전망, 취업문제 등을 질의했다. 주지사는 현재 사할린주를 찾아온 의사들에게 주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청년 전문가들은 일시 보조금도 받으며 5년 후에는 자신의 근무용 주택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지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은 1시간이었으나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많아 거의 2시간이 빨리 지나가버렸다.

(본사기자)

(사진: 카.로스쿠트니코브)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